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건설,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ART 1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국방개혁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국방개혁 관련 법령,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안보·국방환경 전망 및 평가, 국방개혁 기본방향

- 4 국방개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5 국방개혁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6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안보·국방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8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통해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PART 2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군구조분야 개혁목표

- 12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을 개편하겠습니다.
- 13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2만 명으로 점진적 감축하되, 간부비율을 증가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겠습니다.
- 14 육군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 16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 운용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18 해병대는 전략도서 방어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20 공군은 효과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수행과 합동성 및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22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겠습니다.

| CONTENTS |

PART 3

국방경영 혁신으로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방운영분야 개혁목표

- 26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 훈련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8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체제로 개선하고, 항방예비군의 실질적 전투준비를 위해 장비 보강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30 군수지원체계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겠습니다.
- 32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며,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34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국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ART 4

국방개혁,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38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적절한 국방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40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PART 1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국방개혁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2~3년 주기로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국방개혁 관련 법령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제8097호(2006.12.28.)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제19961호(2007.3.27.)
- 국방개혁 추진 규정 제정 : 국방부훈령 제853호(2008.1.1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5조 3항)】

국방부장관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의 발전, 남북 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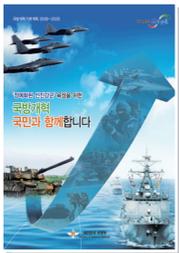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수립 : 2005.12.17.

“21세기 선진국방”을 위해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군 전투임무수행 전념,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 수립 : 2009.6.26.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안보/국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국방개혁으로 보완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수립 : 2012.8.29.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을 위해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안보 · 국방환경 전망 및 평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안보 · 국방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안보정세 전망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신흥강국의 부상으로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 이익 및 영향력 확대 경쟁과 군사력 현대화,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우리의 대비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국방안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북한위협 평가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비대칭 전력¹⁾(핵 및 WMD²⁾)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체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남 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면전환을 위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억제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네트워크 발전으로 감시·결심·타격의 반응시간이 단축되고, 초정밀 무기체계의 발달로 병력위주 군대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 군사선진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 국방환경 변화

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양적 군구조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복지 요구 점증으로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대규모 축소 및 정예화가 불가피합니다.

1) 비대칭 전력 : 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취약점을 최대한 공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핵, 생·화학무기, 잠수함(정), 특수전 전력이며, 우리의 비대칭 전력은 첨단무기체계,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체계 등이다.

2)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 핵, 생물학, 화학 또는 방사능 무기 등 대량 파괴 및 대량의 인명살상을 유발하는 무기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기본방향

■ 목표 :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 단·중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강화합니다.
- 현재 및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합니다.



■ 중점

● 군구조 개혁 분야

북한의 비대칭,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가 가능한 능력을 구비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첨단전력을 증강하여 단위부대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대별 책임지역 확장에 따른 부대 수와 배비³⁾를 조정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에 적합하도록 중간 지휘제대를 적정화하고 간소화하겠습니다.

● 국방운영 개혁 분야

실전적 교육훈련, 효과적 인력운동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동원체제 개선을 통해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겠습니다.

군수운영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발전에 상응한 장병 복지 향상 및 병영문화를 개선하여 선진 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3) 배비 : 공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부대의 예비부대를 분산 배치하고 각 부대마다 임무를 부여하는 것

PART 2. 군구조



| 목 표 | 미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첨단화된 네트워크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군구조 개혁

| 중 점 |

- 합동·연합작전 지휘 및 수행역량 강화
-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한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개편
- 네트워크 기반 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

※ 국방환경 및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능한 군구조로 개편

지휘구조 개편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을 개편하겠습니다.

- 합참을 작전지휘⁴⁾ 조직과 기타 군령(-작전지휘)⁵⁾ 보좌 조직으로 구분 편성하여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작전지휘 조직 :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전략, 지휘통신 기능 수행
 - 군령(-작전지휘)보좌 조직 :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합동실험 기능 수행
- 미래 잠재적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한·미 연합 정보분석기능 보강, 사이버전 수행기능 강화
-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합참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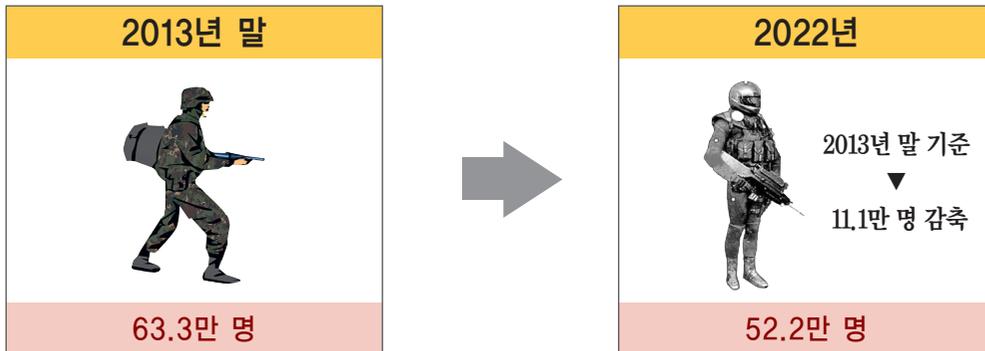
4) 작전지휘(OPCOM : Operation Command) :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예속, 배속, 지원, 작전통제),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을 의미함.

5) 군령(Military Command) :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기능으로서 군사전략기획,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결정 및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교육, 전비태세검열 등을 의미함.

병력구조 개편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점진적 감축하되, 간부비율을 증가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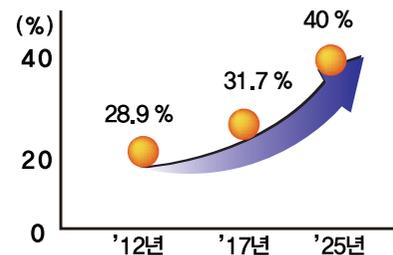
■ 상비병력 감축 목표



* 안보환경과 적정 소요를 고려하여 점진적 감축

■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병력구조 정예화 추진

- 상비병력 감축에 따라 각 군별 간부비율을 40% 이상 유지
- 첨단·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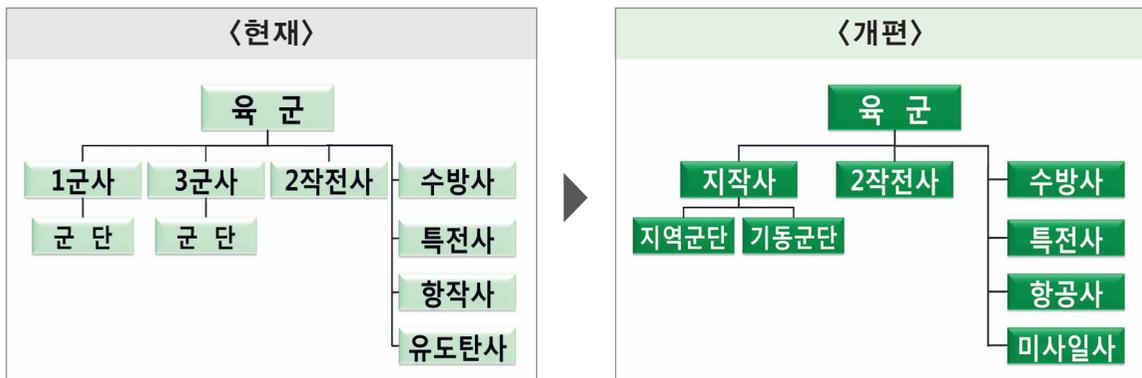


부대구조 개편

The 육군 Army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⁶⁾ 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부대구조 개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 안보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고려하여 작전지휘 기능 위주 편성

보병사단 편성보강

- 적과 접적하고 있는 보병대대의 전투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간부 증원
- 소형 UAV · 복합형 소총 · 전투차량 등 전력 보강

6)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NCOE : Net-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 : 전장요소를 네트워크화하여 전장상황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중심의 동시·통합작전 수행을 보장하여 전투력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작전환경



주요 전력	전차	전투차량	자주포	공격헬기	기동헬기
	MLRS	지대지 미사일	차기지대공미사일	차기소총	차기군단 UAV

■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 지상작전의 최상위 전술부대로서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
- 미래 군단은 현재 야전군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참모부 기능 보강
- 공군 ASOC 편성으로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
- 항공단 · 방공단 · 군수지원 여단으로 편성하여 전투(근무)지원능력 향상
- 전장영역 확대에 따라 감시 · 결심 · 타격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전력 증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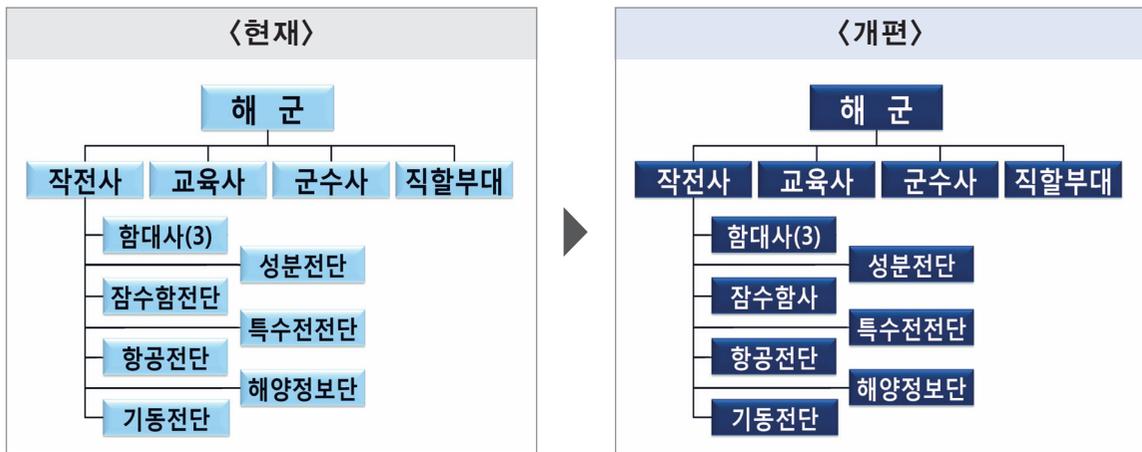


The Navy | 해군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 운용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부대구조 개편



■ 잠수함사령부 창설

- 잠수함 전력 증강과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수중작전 임무 확대에 따라 잠수함전단을 모체로 창설



■ 특수전전단 개편

- 국지도발 및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고,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을 위해 확대 개편

■ 항공전단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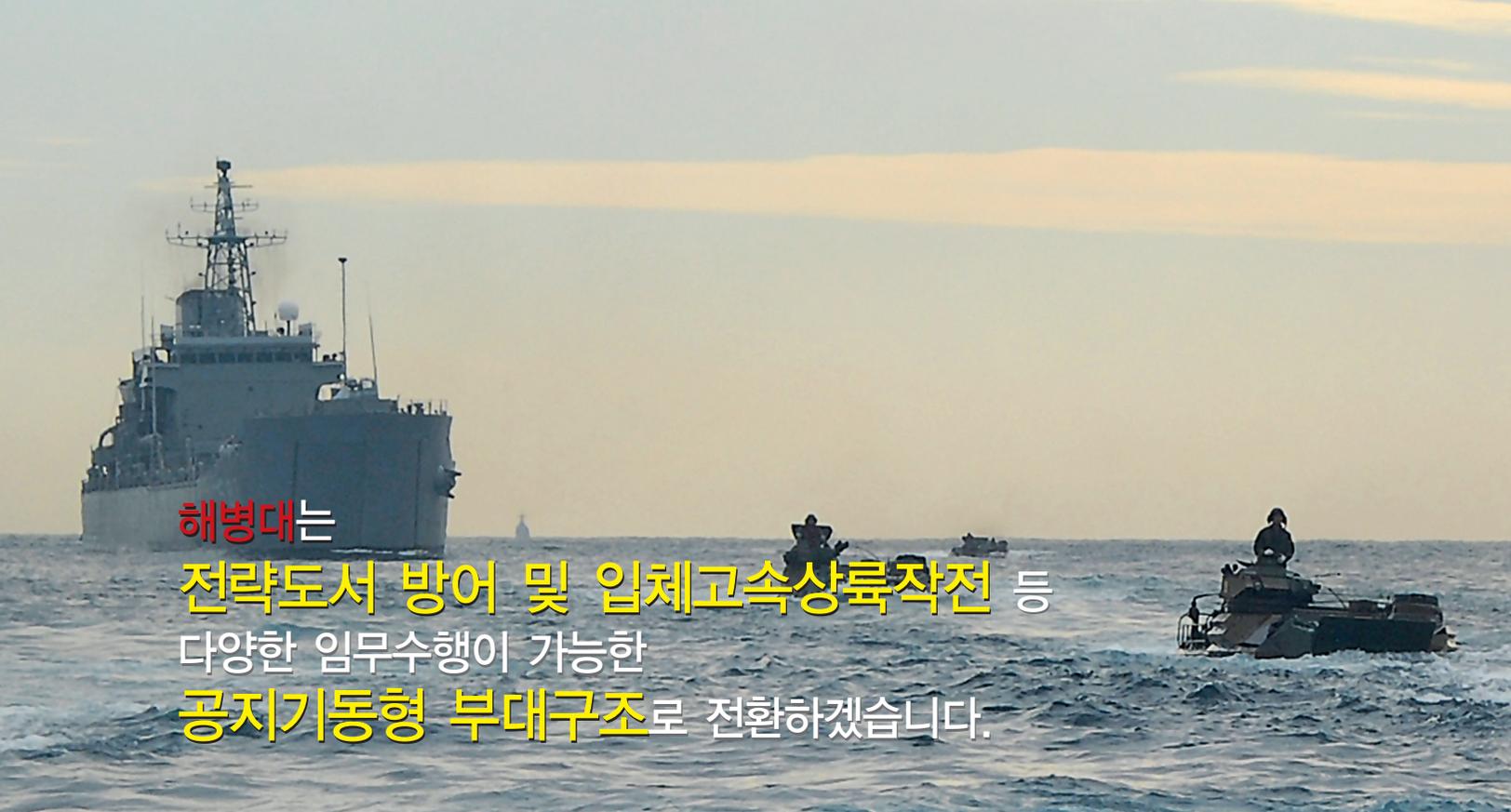
- 항공전력 증강 및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항공작전 임무 확대에 따라 개편

■ 기동전단 개편

- 이지스함(KDX-III) 추가 확보와 연계하여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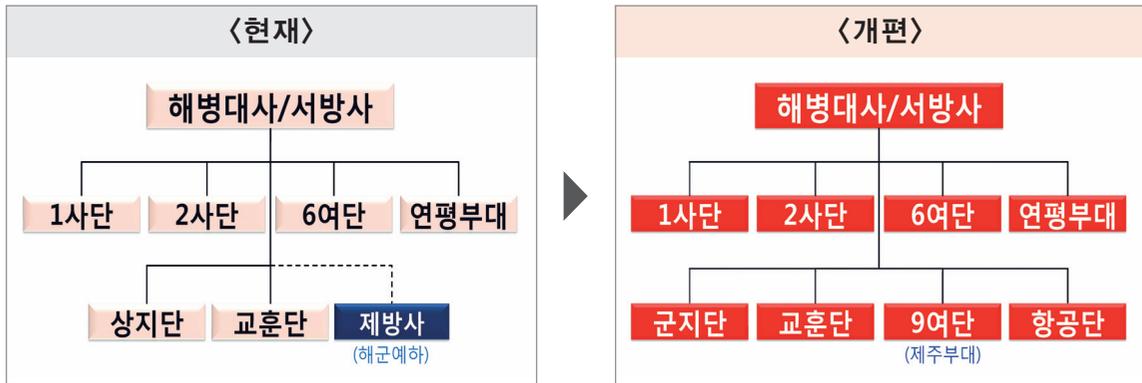
■ 주요 전력





해병대는
전략도서 방어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부대구조 개편



■ 제9해병여단(제주부대) 창설

-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해체에 따라 제주도 내 지상작전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 해병 항공단 창설

- 상륙작전, 지상작전, 신속대응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전략도서 증원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

■ 해병사단 개편

- 전장감시 및 타격, 방호능력을 보강하는 등 전력증강과 연계하여 개편

■ 주요 전력



The Air Force 공군

효과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수행과
합동성 및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부대구조 개편



■ 전술항공통제단 창설

- 지상군·해군에 대해 효율적으로 항공전력 지원
- 육군 군단 중심의 대화력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ASOC⁷⁾을 편성하는 등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

7) ASOC(Air Support Operations Center, 항공지원작전본부) : 지상군·해군을 지원하기 위해 근접항공지원 및 기타 항공지원 작전 임무를 계획, 지시, 통제 및 조정하는 기구



■ 항공정보단 창설

- 항공정찰 자산 증가에 따른 정보임무 수행 능력 강화

■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 전자 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한반도 상공의 위성활동 감시임무 수행

■ 주요 전력

F-X	KF-X	공중 급유기	차기 UAV	대형수송기
				
FA-50	정밀유도무기	장거리유도무기	항공통제기	패트리엇
				

전력구조 개편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Kill Chain 및 KAMD를 구축하고,
 우리의 작전환경과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장기능별 전력화 추진

전장기능별 전력화 추진과 합동성에 기초한 미래전 수행능력의 점진적 구비



- 전장인식 : 한반도 및 주변지역 감시, 제대별 전장가시화
* 위성, 중·고고도 UAV, 제대별 UAV(군단, 사단, 대대) 등



- 지휘통제·통신 전력 :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및 지휘결심 보장
* 전술정보통신체계 및 대대급 전투지휘체계 보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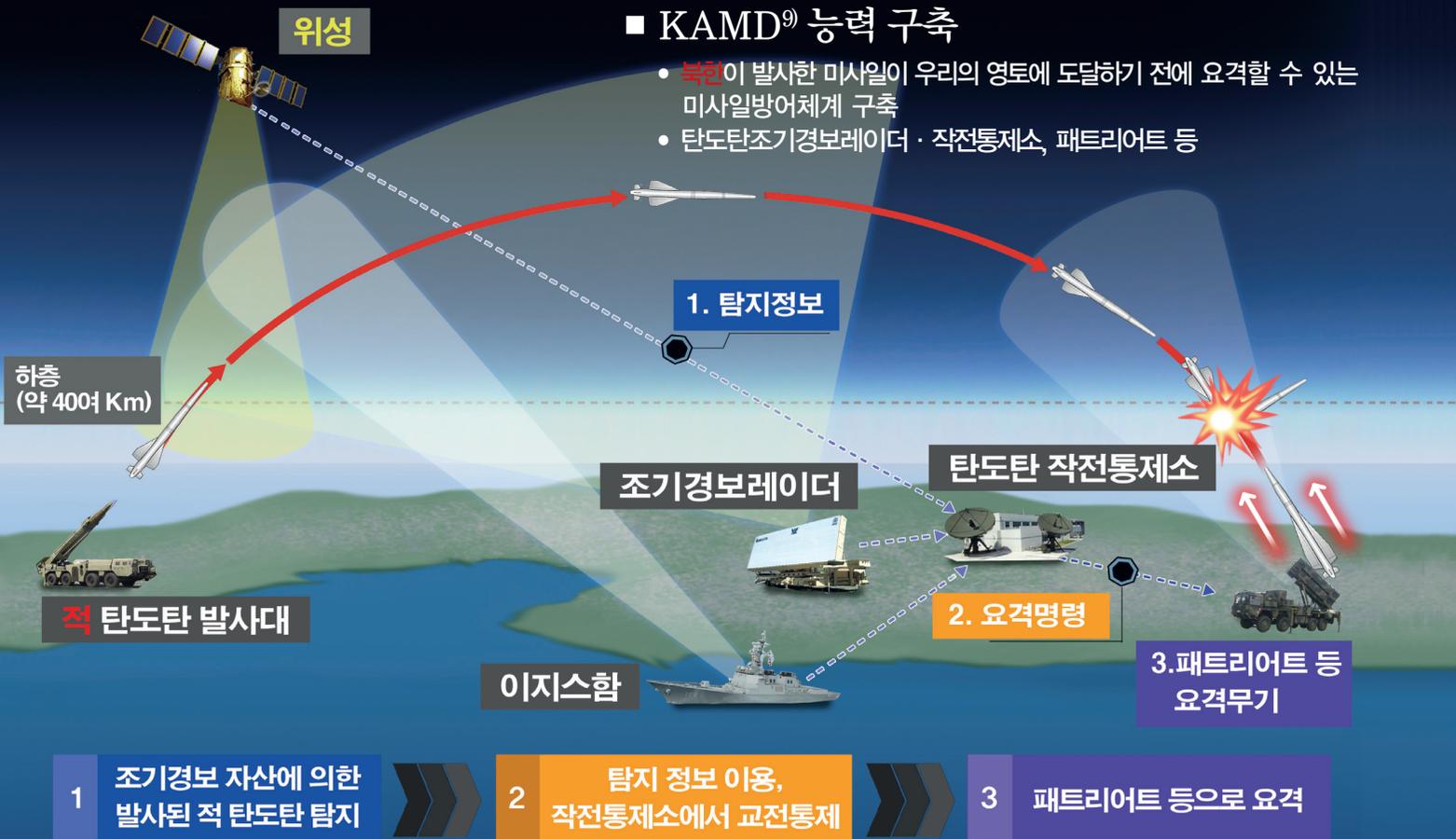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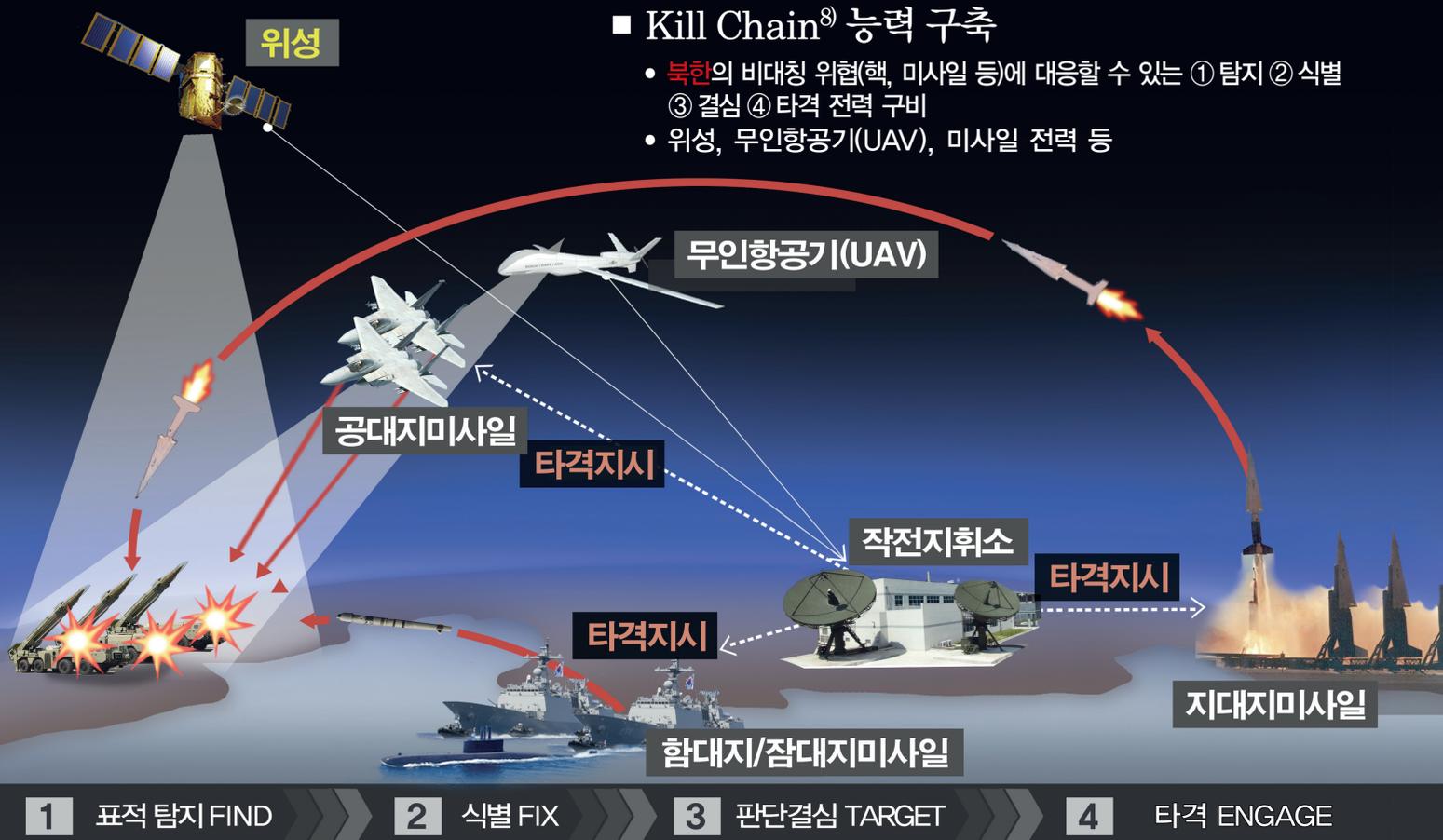
- 지상 전력 :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능력 구비
* K-2전차, 자주포/차기다련장,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등



- 해상·상륙 전력 :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입체고속 상륙작전 수행능력 확보
* 한국형 차기구축함/잠수함, 대형수송함, 상륙기동·공격헬기 등

- 공중 전력 : 공중우세 확보 및 중심지역 정밀타격능력 확보
* F-X/KF-X, 공중급유기, 항공통제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 방호 전력 : 항공기·탄도탄 방어 및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
* 중·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비호복합전력, 신형 화생방정찰차 등



8) Kill Chain : 적 이동식 발사대 등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하기 위한 '탐지-식별-결심-타격'의 일련된 체계

9)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 한반도 전략 환경을 고려, 발사된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 체계

PART 3. 국방운영

국방경영 혁신으로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목 표 |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예비전력의 정예화, 혁신적인 군 운영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장병 복무여건 개선으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국방운영 개혁

- | 중 점 |
- 국방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제도 개선
 - 동원체제 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
 - 군수운영 혁신 및 민간자원 활용 확대
 -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 군 복지 향상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 훈련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국방 교육훈련체계 발전

- 다양한 전장상황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사격과 기동이 통합된 과학적 종합훈련장 구축
- 사단별로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하여 실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전투력 극대화



■ 우수인력 획득 체계 개선

- 대학과 연계하여 군에서 소요되는 우수인력을 맞춤형으로 총원할 수 있도록 학·군 협약 확대

	'13년 말	'18년 이후
군사학과	12개교 450명	20개교 600여 명
부사관과	51개교 5,360명	51개교 6,400여 명

〈학·군 협약 확대 목표〉



- 여성 인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여군 확보목표를 조기에 달성¹⁰⁾하고, 여군 활용 병과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구분	활용 확대병과 ^(14년)
육군 장교/ 부사관	포병, 기갑, 방공, 군중(장교)
장교	군중
해군 부사관	갑판, 병기, 사통, 유도, 전자, 전기, 보수, 내기, 내연
해병대 장교/ 부사관	포병, 기갑
공군 장교	군중

〈여군 활용 병과 확대〉



■ 군 인력운영체계 개선

- 초급장교 및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비율을 확대하고 부사관 계급을 다단계화 (4계급 ⇨ 5계급)함으로써 정원구조 개선



- 간부 정년연장 및 병과·특기체계 개선으로 직업성 보장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전투력 강화와 복무 활성화로 병 복무기간 단축 여건 조성

10) 간부정원 대비 장교는 7%('20년 → '15년), 부사관은 5%('20년 → '17년) 수준으로 확보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합니다.』

국방개혁의 중요한 축으로써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체제로 개선하고,
향방예비군의 실질적 전투준비를 위해
장비 보강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동원즉시 전투력 발휘 및 전쟁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동원체제 개선

- 연평도 포격도발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고
확전 방지를 위하여, 평시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 동원즉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시 예비군자원 관리와 교육훈련체계 보강
 - * 현재 : 13개 행정구역 단위 ⇨ 개선 : 2개 권역(수도·강원권, 기타지역)
 - * 동원간부 별도 미적용 ⇨ 동원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시험 적용 후 점진적 확대)
- 현대전의 전장 실상을 고려하여 전방지역에서 대규모 전투력 손실 발생 시 후방에서 창설한
부대를 병력+장비+교육훈련까지 Package化하여 대대단위로 집단 보충하는 방법 도입





■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낡은 무기 조기 교체, 부족한 전투 장비와 물자 확보
 - * 현재 : M16 + 칼빈 소총 ⇨ 개선 : K2 + M16 소총
- 예비군훈련을 전담하는 208개의 연대단위 훈련장을 44개의 여단단위로 통합하여 과학화 훈련장 설치, 미래 전장에 부합하는 실전적 정예 예비군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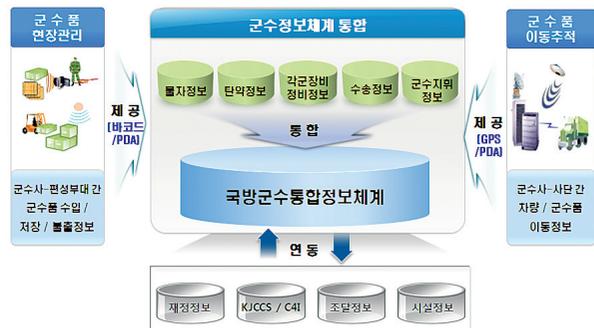


군수운영 혁신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군수지원체계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겠습니다.

■ 군수지원체계를 다단계에서 One-stop 체계로 단축

- 군수지원 단계를 축소하고, 자동인식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중심 One-stop 지원체계 정립

- * 피복 · 장구류, 건설자재, 수리부속 보급단계 : 4~5단계 ⇨ 2~3단계
- * 품종별,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를 하나로 통합



■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 군수 · 복지 · 시설분야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력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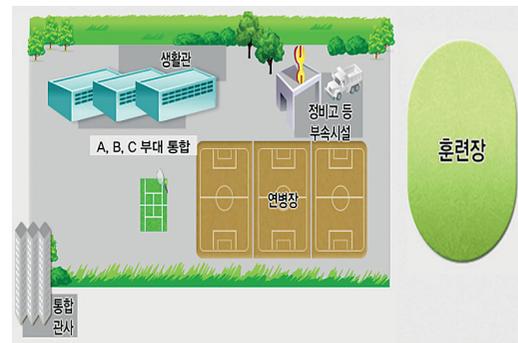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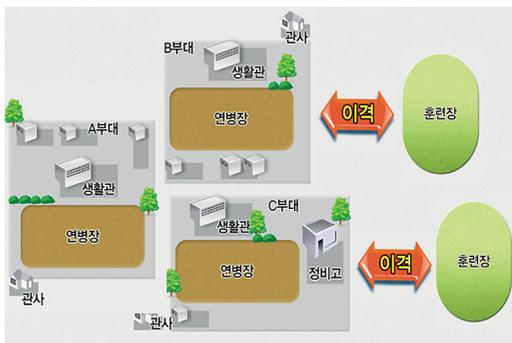


- * 장병들이 직접 하던 세탁, 물자 정비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
- * 군 규격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점진적 교체
- * 책임운영기관 제도 등 민간 선진 운영기법 도입
- * 민간 정비업체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한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등



■ 군사시설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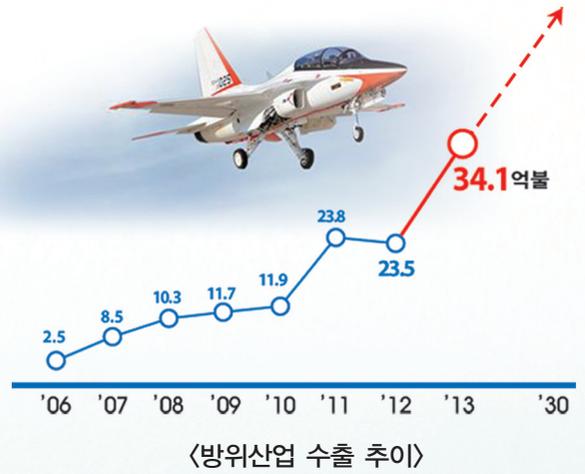
- 소규모로 분산된 군사시설(병영시설, 훈련장, 숙소 등)을 작전 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재배치
- 현대화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부지매입을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과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



- * 병영생활관 및 소규모 연병장 부대별 사용
- * 훈련장과 부대 이격, 궤도차량 이동 시 주민불편
- * 소규모 군관사 산재

- * 병영생활관 통합배치와 연병장 공동 사용
- * 훈련장을 부대인근에 설치
- * 군관사는 대규모 단지화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며,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국방 획득체계 개선 및 ADD 육성

-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기체계 획득 기능 조정,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 향상
- ADD를 세계적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하여 무인기, 로봇 등 첨단무기를 독자적 개발 추진
-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국방 R&D 투자 확대
 - *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국방 R&D 예산 점진적 확대 등

■ 전력지원체계 발전 및 방위산업 활성화

- 전력지원체계 전문 연구기관 설립, 체계적인 전력지원체계 개발
 - * 산·학·연과 연계, 전력지원체계 연구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 방산강소기업 육성, 수출 인프라 확대 등 방산지원 강화
 - * 방산강소기업 10개 선정('14~'18) 지원 및 판매제도 개선, 기술료 감면 확대 등





■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 공간을 영토, 영해, 영공에 이어 국가가 수호해야 할 또 하나의 전장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와 교리 정립, 관련 법령 정비
- 민간대학에 사이버 국방학과를 운영, 사이버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 국방 사이버 안보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장병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해서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국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군 복지향상 및 복무의욕 고취

- 군의 노후화된 마트시설 개선, 병영 내 문화시설 확충 등 장병 복지향상
- 열악한 군내 보육환경 해소
- 전역군인에 대한 일자리 확보로 군 복무의욕 제고 및 전역 후 안정적 생활 여건 조성





6 · 25 65주년 뮤지컬 <프라이스>

■ 병영문화 선진화 정착

-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정착,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용 확대 등 생명존중의 시스템 정착을 통한 사고예방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군 복무 경험의 사회적 보상방안 마련, 국방의 의무가 자랑스럽도록 과제 발굴·시행

■ 의무지원체계 개선

- 질병예방 중심의 병영환경 조성
- 군 의무후송헬기를 도입하여 신속한 후송체계 구축
- 군병원 기능조정 및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통한 치료의 전문성 제고



PART 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려면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결연한 국군의 의지와 열정입니다.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적정한 국방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중기 국방 소요재원 : 연평균 7.2%의 증가 필요

- 국방비는 병력감축, 부대개편, 전력개편 등과 연계하여 방위력 개선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증액 필요
-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WMD 등 비대칭 위협 및 전면전 시 위협 등에 동시에 대응이 가능한 전력 우선적 확보를 위해 투자
 - * 국지도발 대비 능력 강화, 군구조 개편,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등
- 전력운영비는 간부증원, 전투형 군대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병영생활 개선 등

'14~'18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소 계	병력운영	전력유지	
214.5 (7.2)	144.3 (5.6)	84.9 (5.8)	59.4 (5.3)	70.2 (10.6)



더욱 강화되는 방위역량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주춧돌입니다

비대칭 위협 대응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Kill Chain, KAMD 구축
'14 예산: 1조 1,199억원

다목적 실용위성, 무인정찰기, F-15K, 탄도미사일, 이지스함, 표적 탐지, 식별, 판단/결심, 무장운용

국지도발 대비
전방 전투역량 강화, 감시 시스템 보강
'14 예산: 1,782억원

자주적 방위태세
지상·해상·공중 전력 강화, 첨단 무기 도입, 정밀타격능력 구비
'14 예산: 8조 3,420억원

국방 미래 설계
창조형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14 예산: 2조 4,714억원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